

코로나에 막힌 출하길...전남 양식어가 눈물

광어·전복·우럭 출하량
지난해보다 90%까지 줄어
완도·진도·신안 등 양식장
출하길 넘긴 해산물 가득
사료비 등 한달 수천만원
"감염병 장기화 땀 다 파산"



완도 한 양식장의 어민이 출하길을 놓쳐 4kg 가까이 커버린 광어를 들여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불똥이 전남지역 양식업 어민들에게 튀었다. 완도와 진도, 신안, 해남을 비롯한 어촌 지역의 양식장마다 출하길을 넘긴 광어·전복·우럭 등 해산물이 가득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소비가 경색돼 판로가 완전히 막혔기 때문이다. 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지역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외식업 침체와 수산물 기피 등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특히 완도는 광어의 지난해 전국 총생산량(3만 1019t) 가운데 27%(1만 86t)를 생산할 정도로 대표적인 광어 양식 지역인 탓에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에서 지난해 2월 21일~2월 28일까지 출하한 우럭과 광어의 출하량은 각각 47t과 265t이었지만, 코로나가 확산된 올해 같은 기간 출하량은 우럭은 18t이고

광어는 20t에 그쳤다. 예년 같으면 대부분의 양식장에 수송차량이 하루에도 서너 차례 들어와 광어를 실어 나를 때지만, 지난 2월 한 달동안 수송차량이 양식장을 찾는 건 수차례에 불과했다고 한다. 광어를 매입해가는 수송차량이 멈추면서 어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완도에서 매일 전국적으로 40~50t 가량의 광어가 출하됐지만 올 2월 부터는 하루 평균 5t 정도의 출하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수출은 아예 중단된 상태이다. 어민들은 출하할 곳이 없어 하루하루 경영이 어려워데다 날마다 커가는 고기들로 양식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밀집 사육으로 폐사하지 않을까 하는 근심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더욱이 출하하지 못한 어류들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료비와 전기세, 인건비 등 유지 비용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

평균적인 양식 어가(광어 12만 마리 기준)의 경우, 하루에 1t(70만원 상당)의 사료가 먹이로 들어가고 전기요금과 인건비를 합치면 매일 150~200만원이 들어간다. 결국 한달에 최소 4500만~6000만원 이상이 들어가지만 수입이 없어 어민들은 경영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완도군 약산면에서 20년간 광어양식을 해온 김정필씨는 "예년의 정상적인 출하를 100으로 볼 때 현재 출하량은 5도 채 되지 않는다"면서 "가격문제가 아니라 회전이 되지 않고 있다. 이사태가 장기화되면 망하게 생겼다"고 걱정했다. 오한운 전북산업연합회장은 "전북은 항상 매일 15~20t 가량 소비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정체를 당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대출반이 양식업에 뛰어들어 청년들이 경영난에 떠날까봐 걱정이다"고 말했다. 장완규 한국전복유통협회장은 "전복 같은 경우에는 출하 자체가 아예 안되는 건 아니지만, 유통이 최악이다"면서 "전염병이 나타날때마다 활어나 전복 등 어패류들이 타격을 입지만 지난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도 더 힘들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전남지역에는 우럭이나 어류와 전복을 많이 키우는 해상 가두리 양식이 416가구, 광어를 주로 키우는 육상수조식 양식이 169가구 등 최소 600여 가구 양식에 종사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9	달뜨기	11:46
해질	18:30	달집	01:26

마스크 필수
기압골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다.

광주	흐림	2/13	보성	흐림	1/10
목포	흐림	2/11	순천	흐림	4/12
여수	흐림	5/11	영광	흐림	0/12
나주	흐림	0/12	진도	흐림	2/11
완도	흐림	3/13	전주	흐림	1/14
구례	흐림	1/12	군산	흐림	0/11
강진	흐림	1/12	남원	흐림	-1/12
해남	흐림	0/13	축산도	흐림	3/9
장성	흐림	1/13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동~남동	0.5~1.0
면바다(북)	동~남동	0.5~1.5
면바다(남)	동~남동	0.5~1.5
남해서부	북동~동	0.5~1.0
면바다(서)	북~북동	1.0~2.0
면바다(동)	북동~동	0.5~1.5

◇생활지수

- 매우높음
- 높음
- 보통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0:06	07:35
	12:47	19:36
여수	08:17	02:21
	20:52	14:06

◇주간 날씨

4(수)	5(목)	6(금)	7(토)	8(일)	9(월)	10(화)
☀	☀	☁	☁	☁	☁	☁
3/8	0/9	-1/13	4/11	6/18	6/15	5/12



차 탄 채로 체온 측정 2일 오전 광주시 남구 백운동 남구청사 주차장 입구에서 직원들이 열감지기를 이용해 차량 운전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학원·교습소 5000곳에
코로나 위생물품 보급
광주시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지역 5000여 학원과 교습소에 위생물품을 보급하기로 했다.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가 아닌 사설 학원과 교습소에 교육청이 위생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시교육청은 일선 학원에 자발적인 휴원을 권고했다. 지원되는 위생물품은 손소독제로 예비비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와 물품구매 계약과정을 거쳐 3월 중 지원할 예정이다. 우재학 광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휴원 권고에 동참해 준 일선 학원과 학원연합회 광주지부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들을 모색한 결과 위생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학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교육청 지방공무원 372명 공채
광주와 전남교육청이 올해 지방공무원 372명을 공개 채용한다. 이 중 특성학교·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따라라면 직렬별 채용 인원은 교육행정직 일반 49명·장애인 2명·저소득층 2명 등 총 53명으로 가장 많다. 사서 4명, 식품위생 3명, 전산 2명, 시설(건축) 2명, 공업(일반전기)과 시설(일반토목) 1명씩 선발한다. 경력 경쟁을 통해서도 공업(일반 기계) 4명, 운전 2명, 공업(일반토목) 1명을 뽑는다. 전남교육청도 교육직 지방공무원 8개 직렬 299명을 선발한다. 이 중 특성학교·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 공업(일반기계) 2명, 공업(일반전기) 1명, 시설(건축) 2명, 조리 5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응시 원서는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에서 4월 20일~24일까지 접수한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 면접시험은 7월 24일에 실시한다. 최종 합격자는 8월 3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북구 '아동 구정 참여단' 6일까지 100명 모집
광주 북구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구정 참여 보장과 권리 증진을 위해 '제1기 아동 구정참여단'을 운영한다. '아동 구정참여단'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구는 6일까지 구정참여단으로 활동할 단원 100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북구에 거주하는 7~18세 아동·청소년 80명과 미취학아동의 보호자 및 아동관련 기관의 보호자 20명이다. 구정참여단은 4월부터 12월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과 정책제안, 아동친화 캠페인 활동을 수행한다. 자원봉사시간 인정과 교통비 등 실비 지원, 우수단원 구정장 표창 등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